

“어울리면 이웃사촌 정들면 고향이죠”

남도의 설

해남군 마산면 금자마을서 귀농·현주민 50명 어울림마당

“태어난 곳이 다르더라도 사는 곳이 같으면 고향 사람들이죠. 설까지 함께 쇠니 더없이 살가운 한 마을 이웃이 됐습니다.”

귀농가구와 현지 마을 주민들이 설을 준비하며 한마음이 됐다. 설을 앞두고 지난 16일 오후 귀농인과 원주민 50여명이 모인 해남군 마산면 금자마을 회관은 마치 설날 같은 분위기였다. 오랜만에 내리치는 뱃배가 허공을 가를 때마다 “열썬 잘 한다”며 여기 저기 흥겨운 추임새가 흘러 나왔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인절미를 나누어 먹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한 마을 사람들 못지 않은 정이 넘쳐났다. 해남군 마산면 내에 정착한 귀농인은 38세대 93명. 이날 행사는 귀농가구들이 금자마을에 모여 서로 안부를 묻고, 그들은 따뜻하게 맞아준 마을 사람들에게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뜻 깊은 자리였다.

금자마을은 귀농인들을 한 가족처럼 맞아줘 반집이 생기면 곧바로 새로운 귀농인이 들어오고 있다. 지난해 서울에서 내려와 마산면에 정착한 귀농인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준(25)씨는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선 ‘아이돌’ 부럽지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어르신들은 김씨만 보면 “애번 것이 말도 얼마나 예쁘게 하는지 몰라”라며 칭찬 일색이다.

김씨는 “시골마을엔 도시민은 알 수 없지만 보이지 않는 규칙이 존재한다”며 “많은 귀농인이 ‘적응이 어렵다. 뒷세가



해남군 마산면 귀농인협회 회원들이 따뜻한 정으로 맞아준 현지 주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16일 마산면 금자마을을 방문했다. 귀농인들과 현지 주민들이 마을회관에서 직접 만든 인절미를 서로에게 먹여주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귀농인 진심어린 소통 노력에 주민들 농사비법 전수 아이들 뛰놀고 청년 늘어 활기찬 농촌 흥겨운 명절

심하다’라고 말하기보다 이 규칙을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보이지 않는 규칙”이란 간단하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도심과 달리 시골에선 ‘남들에게 보이는 나’를 중요시해야 한다. 소문이 빠른 작은 마을에서는 행동 하나 하나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금자마을 주민들과 귀농인은 정착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대화를 통해 간격을 좁히고 있다.

금자마을 김연심(60) 이장은 “처음엔 타지인이 마을에 들어온다는 것에 말도 많았고 적정도 많았다”며 “주민들이 우려하

는 것을 숨기는 것보다 스스럼없이 털어놓고 소통하는 것이 함께 하는 노하우”라고 설명했다.

익숙한 도시생활에서 벗어나 성공적인 귀농을 꿈꾸지만 현지 주민과의 마찰, 뒷세로 인해 쉽게 정착하지 못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귀농인도 적지 않다. 하지만 진솔한 대화와 소통이 이뤄진다면 귀농인과 현지인 사이에 마찰은 없을 것이라는 게 이곳 주민들의 설명이다.

귀농인의 정착이 잇따르면서 고즈넉했던 마을에 생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70~80대 노인들이 대다수였던 마을에 아이들

재잘거리는 소리가 퍼지기 시작했다. 최근엔 어르신들을 대신해 마을 일에 발벗고 나서는 젊은 청년들도 늘어났다. 농번기가 시작되면 젊은 청년들은 어르신들의 밭에 나가 일손을 돕고, 어르신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농사비법’을 전수해준다.

연고지가 없던 귀농인들은 집이 있어도 땅이 없어 농사를 짓는데 어려움을 겪지만, 땅이 있어도 농사를 지을 여력이 없는 시골 노인들도 많다. 이들은 놀고 있는 땅을 빌려주기도 하고 수천만 원에 이르는 농기계도 스스럼없이 쓰도록 한다.

이젠 ‘나와 나’가 아닌 ‘우리’가 된 사람들은 설의 흥겨움과 함께 새로운 고향사람을 만났다는 기쁨으로 한껏 부풀어 있었다.

/*박기웅기자 pboxer@kwangju.co.kr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광주 고려인 마을 어린이들의 세배.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관련기사 3면

설 연휴 날씨	18일(수)	19일(목)	20일(금)	21일(토)	22일(일)
	☀️ 2 / 7℃	☀️ -2 / 10℃	☀️ 0 / 12℃	☁️ 2 / 12℃	☁️ 6 / 12℃

- 광주 고려인·탈북민의 설 ▶3면
- 떡의 진화·남도의 떡 ▶11-12면
- KTX로 하루에 즐기는 남도 ▶13면
- 설 연휴 극장가 ▶17면
- 설 연휴 TV 프로그램 ▶23~25면

즐거운 설명절 보내세요
光州日報 임직원 일동
설 연휴 18·19·20일 신문 쉽니다

이완구 ‘턱걸이’ 인준

새누리 최소 7명 반대표 ... 贊 148 : 反 128 국회 통과

靑, 오늘 개각 발표

이완구(사진)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16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한 무기명 표결을 실시, 재석 의원 281명 가운데 찬성 148명, 반대 128명, 무효 5명으로 동의를 가결했다.

이로써 이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약 2년 만에 제2대 국무총리에 오르게 됐다. <관련기사 5면>

여권 입장에서는 세월호 참사 11일 만인 지난해 4월27일 정 총리가 참사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이후 ‘삼수(三修)’ 끝에 가까스로 후임 총리 선임에 성공했다.

여권 국회는 지난 12일 동의를 표결할 예정이었지만 야당의 연기 요구를 정의화 국회의장이 받아들여 나흘 연기한 바 있다.

이날 본회의 불참을 검토하던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 논의 끝에 ‘자유투표’로 표결에 참석했다.

새누리당이 155명, 새정치연합이 124



명, 무소속 2명(정의화 의장, 유승우 의원)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이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고 전해지더라도 새누리당에서 최소 7표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다. 정의당 소속 의원(5명)들은 의원총회 결정으로 본회의에 불참했다.

하지만, 무소속 2명이 모두 새누리당 출신임을 감안하면 새누리당의 이태표는 7명 이상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 신임총리의 각료제정을 받아 개각협의를 착수하는 한편 17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이 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이 총리가 취임하면 국무회의를 연 뒤 이날 오후 홍보수석을 통해 인사명단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한전 시스템 조작 2700억 입찰비리

檢, 134억 뇌물 6명 구속 기소

국내 최대 공기기업인 한전의 허술한 입찰 시스템 문제가 검찰 수사가 드러났다. <관련기사 6면>

일개 시스템 유지·보수를 맡는 파견업체 직원들이 시스템을 제 맘대로 주무르며 공사업체들에게 130억원이 넘는 엄청난 ‘뒷돈’을 챙기는데도, 한전은 무능함을 드러냈다. 입찰 시스템 조작 문제가 10년 가까이 이뤄져왔지만 전혀 몰랐다는 게 한전측 해명으로, 비리 감시 시스템은 사실상 ‘먹통’이나 다름없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부장검사 김충범)는 16일 입찰 시스템을 관리하면서 낙찰가 등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특정 업체를 공사업체로 선정되도록 하고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배임수재

등)로 박모(40)씨와 이모(39)씨 등 한전 KDN에 파견된 정보통신 업체 전·현직원 4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이들과 공모, 공사업체를 끌어들이는 등 불법 낙찰에 관여하고 돈을 준 업자 주모(40)씨 등 2명도 구속 기소했다.

박씨 등은 지난 2005년부터 입찰시스템 서버를 관리하면서 낙찰가를 알려주는 등의 방법으로 83개 업체가 133건의 공사(공사가액 약 2709억원 규모)를 낙찰받을 수 있도록 하고 134억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지율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신대학교
학부 추가 신학과, 국제한국어교육학과, 음악학과, 사회복지상담학과, 유아교육과, 실용음악학과
원서접수 ▶ 2.16 ~ 22(일) 062-605-1114
대학원 추가 일반대학원, 신학대학원, 교육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원서접수 ▶ 2.9 ~ 23(일) 062-605-1115

디자인을 밝히다
The New generation CLS.

Mercedes-Benz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신성자동차(주) 광주 전시장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번지/TEL 062)226-0001

권부공인 연비 및 등급 • CLS 250 BlueTEC 4MATIC Coupé 2,143cc, 1,9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4.3km/ℓ (도시연비: 12.8km/ℓ, 고속도로연비: 16.8km/ℓ), 2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38g/km • CLS 250 BlueTEC 4MATIC Shooting Brake 2,143cc, 1,97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3.4km/ℓ (도시연비: 11.9km/ℓ, 고속도로연비: 15.9km/ℓ), 3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48g/km • CLS 400 2,996cc, 1,805kg, 7G-TRONIC PLUS, 복합연비 10km/ℓ (도시연비: 8.8km/ℓ, 고속도로연비: 11.9km/ℓ), 4등급, 복합CO₂ 배출량 177g/km • CLS 63 AMG 4MATIC 5,461cc, 2,010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1km/ℓ, 고속도로연비: 8.8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 CLS 63 AMG 5 4MATIC 5,461cc, 1,995kg, AMG SPEEDSHIFT MCT 7-Speed, 복합연비 7.1km/ℓ (도시연비: 6.2km/ℓ, 고속도로연비: 8.6km/ℓ), 5등급, 복합CO₂ 배출량 256g/km ※본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및 정비상태 등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